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에스더의 요구 / 우리의 소망

한줄요약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인생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

도입

에스터를 보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이는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로 불리는 요기 베라가 한말 인데요. 이는 승리확률 99.9%의 경기도 역전패할 수 있듯이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유다인은 전멸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4번 타자가 9회에 역전 만루홈런을 만들어 경기를 역전하는 것 처럼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를 마지막 역전 카드였습니다.**

1) 에스더의 요구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간 이후 두 번째 왕을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 초대합니다. 원수 하만도 함께요. **왕은 두 번째 잔치까지 3번이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말하며 이전에는 에스더가 간청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7장에 와서 보면 상황은 바뀌어 마치 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왕은 이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제 에스더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에스더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까지의 페르시아 왕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단한 에스더는 그렇게 왕을 애태우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 한다 합니다. 분노한 왕은 <감히>라는 말과 함께 이런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고발합니다. 왕은 화가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갑니다. 다급해진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강간까지 하려는가?>라고 하며 그를 벌하기로 합니다.

2) 우리의 소망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의 인장까지 받은 조서를 받았고 그의 계획은 거의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은 순종하는 에스더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왜 무너질까요? 그것은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미래를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고도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일반 역사를 통해 늘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장은 내 현실이 암울해 보입니다. 당장은 세상을 따라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우리 미래까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것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을 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할 때 동일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4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줄요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

도입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가장 바라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한번은 죽기 때문에 늘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다 써보지만 어떤 인간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류가 절대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해결해주시는 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어떤 것도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유는 그 빛은 죽음이라는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함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둠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빛은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며 그것들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의 빛은 인류의 소망이자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육신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깨닫지>를 <이긴다>로 번역한다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2)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은 이런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써 요한을 언급합니다. 사도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광야의 외치는 자로써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피조물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찾아 어둠속에 빛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자격은 혈통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을 세상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등바등 갖은 수를 쓰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비록된 우리의 욕심, 두려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죽음 주님과 만난 우리라면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모두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14절

생명의 떡 예수님

오병이어 /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줄요약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1) 오병이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 하였고, 그 지역 출신 빌립에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르게 200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빌립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에 모인 인원이 남자의 수만 무려 5천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해결하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놀랍게도 거기 모인 모두가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참 선지자라 칭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2)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시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시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26절의 말씀처럼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으며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먹고 너희가 살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으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이일을 하신 이유와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선언

예수님의 권면 / 승리하신 예수님

한줄요약

예수님을 믿음은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영광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도입

위대한 스승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대로마는 이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철학과 수사학을 열심히 배워 존경받는 스승의 문하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세상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권면과 위로를 이어가십니다.

1) 예수님의 권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이라고 합니다. 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강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때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대답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이후의 행적을 본다면 깨닫기 보다는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믿는다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 이후의 일들을 알고계시기에 그들이 흩어져 예수님을 혼자 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2) 승리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 이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노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위축되지 말아야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은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 예수님이 악한 세상을 이기셨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담대함이 이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미 “이간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 이김의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속하게 만들어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영광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위협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이 부러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이기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두란노 HOW주석 15_에스더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 아카데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에스더,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요한복음

두란노 HOW주석 37_요한복음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NICNT요한복음

엑스포지멘터리 룯기, 에스더, 쉽게 풀어 쓴 요한복음 이야기2_이동원 지음